

## &lt;주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gt; - 행 1:3-11

## 1. 성령 세례

## 2.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총복습과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오순절 성령강림 후의 복음 전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을 다시 요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오순절 후에 복음을 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3년 동안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 아래게 현장 실습을 겸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40일 동안에 또다시 총복습과 총정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철저한 교육과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얼마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베풀 물세례는 하나의 '의식'이며 '상징'입니다. 곧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로, 물로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물세례 그 자체는 결코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없으며 단지 상징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람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며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베풀 물세례가 의식이며 상징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그 의식의 내용이며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해방되며, 언제 주위 나라들을 굴복시키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6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의 충분한 교육과 마지막 40일 동안의 재복습 및 재정리 교육을 받았음에도, 영원한 하늘의 것이 아닌 썩어질 없어질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7~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나 종말의 문제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으로써 우리 인간이 알 바가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이어 본문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강림의 전제 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는 것으로써, 중력의 힘을 이기시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며,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상 세계’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리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11절) 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천사가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승천하신 것처럼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자!

####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 행 9:1-9

##### 1. 오만방자한 사울

##### 2. 변화된 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동성애 운동가 이요나목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분의 이력이 참 독특한데요. 이분은 1980년대 동성애자였으며, 당시 유명한 여장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바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과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과거 이력이 있었고, 지금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었기에, 동성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에는 복음과 정반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신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박해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경계선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까지,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말든. 그들을 추격해서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만나면 누구든지 막론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고자,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출발하였고, 그곳에 거의 이르렀을 때,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오가 되었을(행26:13)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무리 중 사울에게만), 인격적으로(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시면서), 불가항력적으로(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심으로서 사울이 피할 수 없었던), 그리고 목적적으로(예수의 증인을 삼고자) 사울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는 것이 그의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를 예수의 증인으로,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간 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가치가 최고라고 여겼던 오만방자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결과 영적 소경이었던 그의 영적 눈이 열렸고, 영적 병어리였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무지한 자들에게 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작년 특새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핍박자요 행악자였던 사울을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를 믿고도 과거처럼 살아간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은혜의 복음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 <가짜와 진짜의 싸움> - 행 15:1-11

1.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
2.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명에 순종하여, 욕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으나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그 결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의 선교 결과는 물론이고, 할례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단호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후, 더욱 권위적인 사도들 공동체에 이 문제를 의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대표단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를 들러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를 아주 기쁘게 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10년 전쯤에 있었던 교넬로의 회심 사건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조상들도 메지 못한 명예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사람들을 율법의 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든 율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명예를 씌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씌우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믿음이 좋고 좋지 않음을 판단할 뿐 아니

라 나아가 구원에 관해서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오만한 이런 가치관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죄에 빠져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 행 20:17-35

#### 1. 목자의 사명

#### 2. 복음 전파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밀레도 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문제들을 내다보고 말씀으로 이를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간계로 인해 위험한 순간에 놓였을 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여기서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와 부족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며,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과 각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길에는 예루살렘에서 받을 결박과 핍박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다 달려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이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먹어야 할 양 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 양 떼를 사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장로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전이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양은 목자가 섬 없이 경계하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들이 양 떼 가운데 무서운 기세로 들어가서 유린하려고 틈을 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부로 파고드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32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목회적 인도와 지혜로운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준 모범에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핌을 받은 사명자들은 물질적인 보상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 부서 선생님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장님들에게 팸 식구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줄 요약 :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 <거칠 것 없는 복음 전파> - 행 28:23-31

1.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2. 복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 입성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두 차례 면담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면담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면담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수 신분이지만 부당한 고소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오게 되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고소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즉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면담에서는 유대인들과 더욱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을 경청하였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참된 해방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중에는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믿음의 자손,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셨으며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즉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주의 백성이 참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구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처럼 누구든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는 매인 상태였으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큰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바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곳과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선교사의 흘린 수고의 땀, 눈물의 기도 그리고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 그리고 손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자.

#### <참고문헌>

1. ESV 스테디 바이블
2. HOW 주석
3. NICNT
4. QA시스템 성경연구
5. 라이프성경사전
6. 매일성경전집
7. BKC 주석